

전통복식의 현대적 활용화를 위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의상디자인전공 석사 권순교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박선경

· 목 차 ·

- I. 서론
- II. 조선시대 여성복식의 전통미
- III. 조선시대 여성복식에 표현된 조형성
- IV. 선호도 조사에 따른 국내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특성
- V. 디자인 개발 및 작품 제작
- VI. 결론

<요 약>

오늘날의 복식은 매스컴(mass media)과 인터넷의 발달로 패션 트렌드(fashion trend)라는 커다란 유행의 흐름에 따라 전 세계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 복식 또한 조선후기 서양의복의 도입을 시작으로 많은 변화를 거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있으며 결혼예식과 예복 또한 한국적인 독창성이 결여된 채 서구 지향적으로 양식화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서양 중심의 의복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른 어떤 복식보다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진 결혼예복에 한국전통의 조형미를 접목시켜 제시함으로써 전통한복을 현대적으로 활용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전통여성복식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 조형미를 형식미와 내용미의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둘째, 심층설문 조사를 통하여 국내 웨딩드레스 선호도 경향을 파악하였다. 셋째, 현대적 활용화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웨딩드레스를 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현대복식의 한 분야인 웨딩드레스 디자인에 있어 한국적 독창성을 살리는 동시에 최근 웨딩드레스 트렌드를 반영하여 시대적으로 활용 가능한 디자인을 개발함으로써 전통복식의 활용화 방안을 제시해보았다.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 서양의복의 도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우리 의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 오게 되어 우리민족과 역사를 함께하며 정착된 전통복식은 점점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의복은 문화이고 우리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올바른 인식을 가질 필요성을 안고 있다. 이에 현대 디자인에 접목 되어도 손색이 없는 전통한복의 자연스러운 실루엣, 아름다운 재질과 색채에서 우리나라의 단아함과 우아함 등을 소비자들의 변화된 기호에 맞게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우리 생활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핑크패션의 창시자로 알려진 영국의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는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의 전통 소재인 타탄체크(tartan)를 대담하게 사용하여 주목을 받았고 버버리사(Burberry)의 타탄체크도 전통을 현대 패션브랜드로 개발하여 국제적으로 사랑 받고 있다. 중국의 치파오(旗袍) 역시 인체의 실루엣이 강조되는 특징으로 현대적인 드레스형과 유사하여 현대 패션디자인에 자주 활용되고 있으며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국가적인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례복이나 야외복으로 애용되고 있다.¹⁾ 국내의 경우 이영희, 이신우, 진태옥 등을 비롯한 몇몇 디자이너들에 의해 전통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으며 해외 패션컬렉션에 참가하여 전통복식의 특징을 다양하게 활용하기도 한다. 이는 한국적인 특징을 지닌 패션디자인은 국제무대에서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이러한 일상복의 변화와는 달리 우리나라 결혼예복은 1950년대 말 서양식 웨딩드레스가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단순히 서양패션을 모방한 디자인의 웨딩드레스가 높은 가격으로 대여되는 비합리적이고 비경제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복식보다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진 결혼예복에 한국전통의 조형미를 접목시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보고 전통한복의 조형적 특성을 고찰하여 웨딩드레스 디자인에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전통한복을 현대적으로 활용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조선시대는 오늘날 한복의 기본형식이 성립되고, 미화현상이 현저했던 시기²⁾이므로 우리 전통복식미를 대표할 수 있으리라 보고 조형미의 고찰범위는 조선시대로 제한하였다.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목적 및 연구내용과 방법을 정리하였고 본문에서는 연구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

1) 금기숙 (2004). 「전통 복식 문화의 현대적 활용 방법 모색」, [韓國服食 제22호], pp.16-22.

2) 최세완 (1992). 「현대패션에 표현된 한국복식의 전통미」,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

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실증적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웨딩드레스를 제작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된 선행 연구논문과 단행본 및 학술연구지를 살펴보고, 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전통복식을 직접 관찰하거나 다양한 사진 자료를 통해 전통여성복의 전통미와 그 조형성을 형식미와 내용미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둘째, 실증적 연구로는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에 밀집한 웨딩드레스 업체 중 10곳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직접 방문하여 디자이너들과의 심층 설문조사를 통하여 최근 우리나라 여성의 웨딩드레스 디자인 선호도를 파악하였다.

셋째, 이와 같은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조사를 바탕으로 전통복식을 현대적으로 활용한 웨딩드레스 3벌을 디자인하여 제시해 보았다.

II. 조선시대 여성복식의 전통미

1. 원삼(圓衫)

원삼은 조선 후기에 가장 일반적인 혼례복 중의 하나로 초기에는 왕비의 법복(法服) 외에 노의(露衣)와 장삼(長衫)이 예복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후기에 이르러 원삼 한 가지로 집약되었다.

원삼의 종류에는 황원삼, 홍원삼, 자적원삼, 녹원삼 등을 들 수 있으며 왕비는 상복(常服)으로 빈궁(嬪宮)들은 소례복으로 내외명부(內外命婦)들은 대례복으로 착용하던 것이 후기에 이르러 일반



<그림1> 황후 황원삼, 우리 옷 이천년, 미술문화 세종대 박물관 소장



<그림2> 자적원삼, 우리 옷 이천년, 미술문화



<그림3> 금직녹원삼, 우리 옷 이천년, 미술문화 이화여대 박물관 소장

3) 조효순 (1989). 『한국복식풍속사 연구』, 서울: 일지사, p.298.

인들의 혼례복으로 허용되었다.⁴⁾ 형태는 신분의 차이 없이 착용하나 색상은 구분하여 착용하였다. <그림1>은 황원삼으로 황금색 길에 앞은 짧고 뒤는 길어 땅에 끌릴 정도였으며 앞뒤는 약 30cm 차이가 난다. 홍색 봉황무늬 대대(大帶)에 오조룡문(五爪龍紋)을 직금(織金)이나 부금(付金)하여 신분의 상징으로 나타내었으며 넓은 소매 끝에는 홍색과 청색의 색동으로 하였고 흰색 한삼(汗衫)을 대었다.

빈궁은 자적색(紫赤色) 길에 황색과 홍색의 색 끝동에 한삼이 달린, 봉문 금박을 박은 자적원삼 <그림2>을 착용하였는데 길감은 자적색이고 안감은 노란색이며 직금문양은 봉황문(鳳凰文)을 하였다. 공주나 왕주가 대례복으로 착용하던 녹원삼<그림3>은 연두색 길에 다홍색과 노란색 끝동과 한삼이 달리고 직금문양은 화문(花紋)이다. 녹원삼은 일반 서민의 신부예복으로 착용이 허용되었으나 직금이나 부금은 사용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지위가 높은 순으로 옷의 색깔은 황색, 자적색, 초록색의 순서가 되고 무늬는 용(龍), 봉(鳳), 화(華)문양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2. 활옷(華衣·豁衣)

활옷은 공주나 왕주 또는 상류층에서 주로 혼례 때 사용하던 예복⁵⁾으로 원삼과 같이 중국의 포(袍)를 받아들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면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⁶⁾ 원삼보다 더 화려하게 꾸민 것으로 옷의 전면에 화문(花紋)을 가득히 수놓은 특징으로 볼 때 ‘화의’(花衣) 또는 ‘활의’(豁衣)에서 우리말 ‘활옷’으로 발음이 변한 것⁷⁾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슴·등·소매 끝 등을 포함한 옷 전체에 수가 놓여있어 혼례복으로서의 의미와 화려함을 준다.

활옷의 길이는 지면에서 약간 올라 갈 정도이고 앞길이 뒷길보다 약20cm정도 짧으며 옆이 트이고 앞자락이 둘, 뒷자락이 하나로 세 자락이 되며 깃을 달고 동정을 단다.⁸⁾ 소매는 대

부분 앞면 윗부분에 목단 문양이 약간 보일 정도로 수를 놓았으며 뒷면에는 연꽃, 목단꽃, 호랑나비 문양이 사용되었고 색동부분에는 수를 놓지 않아 색동 자체색의 아름다움을 살렸다. 문양의 종류와 위치를 보면, 앞길은 동정 근처에 글자문양과 목단문(牧丹紋)을 수놓았고, 앞길 아래에는 장수와 수복을 의미하는 물결, 바위, 불노초, 어미봉, 새끼봉, 목단화 문양이 수놓아져 있다. 뒷길에는 장수와 수복을 의미하는 물결, 바위, 불로초, 봉황새, 연꽃, 목단꽃, 구름 등의 문양을 수놓았으며 진동선 위치의 좌측에 백복지원(百福之源)을 우측에 이성지합(二性之合)의 글자 문양을 수놓아⁹⁾ 혼례의 큰 뜻을 담고 있다. 활옷은 노랑 삼희장저고리와 다홍 대란치마 위에 입었으며, 대대

4) 위의 책, p.298.

5) 문화관광부 (2000), 『우리옷 이천년』, 미술문화, p.101.

6) 안명숙김용서 (1996), 『한국복식사』, 서울: 교문사, p.120.

7) 백영자 (1998), 『한국의 복식』, 서울: 경춘사, p.274.

8) 강혜영 (1993), 「전통혼례복을 활용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9.

9) 위의 글, p.22.

[大帶]를 하였다. 머리에는 용잠(龍簪)을 꽂고 뒷땀기를 드리웠으며 칠보화관을 써서 화려함을 더했다.



<그림4> 활옷, 한국복식 이천년, 국립민속박물관

3. 당의(唐衣)

당의는 궁중 여인의 예복 중 가장 간편한 소례복(小禮服)으로 평상시에 흔히 입는 것에서 후기에 와서 일반인의 혼례복으로 허용되었다. 그 유래는 ‘당(唐)’자로 미루어 중국 당나라의 옷이 삼국시대 때 들어온 것이라고 하는 설¹⁰⁾도 있고, ‘당’이라는 글자가 저고리의 양귀가 뽕족한 데서 ‘당코’라는 의미로 표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설¹¹⁾도 있으나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당의의 모습은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당의의 형태는 저고리와 비슷하나 앞길과 뒷길이 저고리보다 약 3배정도 길어 입었을 때 무릎 근처까지 닿으며, 도련은 둥근 곡선을 이룬다. 옆은 진동선 이하가 트여 있어 앞길이 좌우 두 자락, 뒷길이 한 자락으로써 모두 세 자락으로 되어 있다. 연두색 비단 바탕에 홍색 안을 넣으며 고름은 자주색이고 소매가 좁고 소매 끝에는 흰색 명주나 창호지를 속에 넣어 소매 끝에 덧대어 자주 갈아 달수 있는 것도 저고리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당의는 사용된 색에 따라 연두당의·자주당의·남송(南松:노랑)당의·백색당의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연두당을 가장 많이 입었다. 당의는 활옷이나 원삼처럼 웅장하고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간편하고 단정하여 조선시대 일반인들이 많이 착용하였던 혼례복 중의 하나였다.¹²⁾

4. 치마

삼국시대 문헌에 치마는 상(裳)·군(裙)으로 표기되어 있고 조선시대에는 세종(世宗) 2년 원경왕

10) 네이버백과사전검색, <http://100.naver.com/100.nhn?docid=43729>

11) 안명숙김용서, 앞의 책, p.121.

12) 조효순, 앞의 책, p.300.



<그림5> 초록부금당의,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 단국대 출판부



<그림6> 자적당의, 중요민속자료제1호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 단국대 출판부



<그림7> 왕비의 당의와 대란치마, 우리 옷 이천년, 미술문화

후(元敬王后) 천전의(遷奠儀)에 적고리[赤古里]와 함께 처마[赤尔]로 기록되어 있으며 역대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¹³⁾의 기록도 같다.¹⁴⁾ 이 시대 치마는 길이나 선에 약간의 변화는 있었으나 많은 변화는 겪지 않았으며 길이가 길고 폭을 넓어 매우 풍만한 하후상박(下厚上薄)형의 실루엣을 나타내게 되었다.

왕실에서는 스란치마를 예복용으로 착용하는데 왕비는 용문(龍紋) 세자비는 봉문(鳳紋), 공주·옹주는 화문(花紋)이며 치마감과 같은 색 옷감에 직금(織金) 또는 부금(付金)하였다.¹⁵⁾ 대란은 <그림8>과 같이 스란단이 2층으로 부착된 것으로 평상시의 치마보다 비단 한 폭을 더한 만큼 넓고 길이도 30cm 이상이다. <그림9>는 남양홍씨(南陽洪氏) 부부 합장묘 이장 시 출토된 전단후장형(前短後長形) 예복용 치마이다. 긴 길이의 치마 앞부분 상단을 접고 고정하여 보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길이를 조절한 것¹⁶⁾인데 치마의 뒷자락이 길게 끌리게 되면서 서양의 드레스를 연상하게 한다.

조선 전기에는 허리에 치마끈을 매었으나 후기부터는 점점 치마 길이가 길어져 영·정조 이후부터는 가슴에 치마끈을 매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치마의 형태는 하체를 부풀리고 상체는 짧은 저고리로 조이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실루엣이 특징인데 속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치마를 부풀리면서 속치마의 발달을 가져왔다. 속치마에는 대습치마·무지기치마(無足裳)<그림10> 등이 있는데 무지기치마는 바지 일색이었던 속옷과 달리 가랑이가 달리지 않은 속옷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양의 페티코트(petticoat)와 유사한 역할을 하며 그 디자인 또한 매우 서구적이다.

13) 조선시대 국왕 및 왕세자의 혼례의식 절차를 적은 책, <http://100.naver.com/100.nhn?docid=612>

14) <http://100.naver.com/100.nhn?docid=149237>

15) 남기연 (2000). 「한복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현대의상 개발 연구」, 한성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1.

16) 박성실·조효숙·이은주 (2005),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 단국대학교출판부, p.30.



<그림8> 대란치마 (16세기이후)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
단국대 출판부



<그림9> 예복용치마 (16세기)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
단국대 출판부



<그림10> 무지기치마 (19세기말)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
단국대 출판부

5. 저고리

저고리는 조선 제4대 세종(世宗) 2년(1420) 원경왕후(元敬王后: 太宗妃 閔氏)의 선전의(選奠儀)에 ‘홍단자 적고리(紅緞子 赤古里)’란 말이 처음 나온다.¹⁷⁾ 저고리는 길·소매·شط·깃·동정·고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겹저고리와 홑저고리 2가지가 있다.

조선의 저고리는 상당량의 실물이 남아 있어서 당시 착용했던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¹⁸⁾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고리의 모양은 계속 변하였고 이러한 변화 양상은 깃 모양과 소매 폭, 저고리의 등 길이에서 두드러졌다. 초기의 여자저고리<그림11>는 등 길이와 화장이 길고 옆이 아래로 퍼지며 허리까지 내려왔으나 조선말 저고리 길이가 점점 짧아져 겨드랑이 밑이 약 1cm로 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였으며 겨드랑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배래선에서 그대로 도련선으로 연결되는 것도 있었다. 실물<그림12>을 보면 가슴은 가리지도 못할 만큼 저고리 길이가 짧고 소매도 매우 좁아서 착용 시에는 터질듯이 몸을 압박하여 여유롭지는 못한듯하나 풍성한 치마가 받쳐 주기 때문에 여성스럽고 아담하였다. 이와 함께 가슴의 노출을 막기 위해 치마허리 위에 허리띠를 만들어 한 장 더 착용하는 풍속이 생겨나기도 했다.¹⁹⁾



<그림11> 은진송씨 회장저고리 (1509~1580년)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 단국대출판부



<그림12> 회장저고리 (1900~1910년)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 단국대출판부

17)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 <http://100.naver.com/100.nhn?docid=133796>

18) 유효순·최해울 (2000). 『복식문화사』, 서울: 신광출판사. p.185.

19) 위의 책, p.187.

Ⅲ. 조선시대 여성복식에 표현된 조형성

한국복식의 조형미라 함은 일반적으로 그 시대의 자연·역사·종교적 배경 등이 반영되어 생겨난 우리 민족 고유의 특성으로 조선시대 여성복 또한 당시의 민족성과 역사성 등이 적절히 융합되어 생겨난 독특한 조형미를 가진다.

본 장에서는 조선시대 여성복에 표현된 조형성을 형식미와 내용미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형식미라 함은 복식에 표현된 외형적인 특성으로 그 표현요소는 형태, 색채, 문양, 소재로 나누어지며 내용미는 그 형식미에 내재된 여러 가지 관념적인 의미라 하겠다.

1. 형식미의 표현요소

1) 형태

의복에 있어서 형태란 복장의 외형선 즉, 전체적인 윤곽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여성복은 상체를 조이는 듯하며 하체를 팽대시키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이 대표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특히 치마에 풍성함으로 허리와 가슴 등의 인체의 선을 뚜렷이 나타내지 않는데 이것은 유교적 관념으로 인해 신체의 선을 뚜렷이 나타내는 것은 예의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기도 하며 자연스러운 윤곽을 나타내어 우리민족 체형의 단점을 감추어 주기도 했다.

여성복의 형태가 갖는 특징은 직선, 곡선, 사선의 표현으로 직선은 원삼과 활옷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난다. 앞길 두 자락과 뒷길 한 자락이 옆이 트인 상태로 아래까지 길게 내려오는 형태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직선적 형태는 직선이 주는 조형적 형태 외에 트임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기 능적인 특징을 갖는다. 트임은 활동성을 더해줌과 동시에 평면구성으로 인해 단조로운 면을 완화시켜준다. 곡선은 당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데 당의는 실질적으로 곡선이 가장 많이 이용된 옷으로 옆 겨드랑이에서부터 아래로 완만한 곡선을 그리다가 허리쯤에서 급한 곡선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선형(扇形)을 이룬다. 이러한 당의의 곡선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면서 대부분 평면의 단조로운 선으로 이루어진 전통한복이 갖는 형태미와 차별을 이루어 가장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형태의 특성은 절제미를 기본으로 하는 직선과 당의와 저고리의 소매에서 표현되는 곡선이라 할 수 있다.

2) 색채

색은 가시적 인식의 역할만이 아니라 우리 정서에 깊이 관여하여²⁰⁾ 각 민족의 독특한 고유색은 그 민족의 사회·문화적 배경 또는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어 상징색이 되는 것이다.

20) 남기연, 앞의 글, p.53.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백의민족’이라고 불린 만큼 흰 옷을 즐겨 입었는데 백색은 소박하면서도 순수한 아름다움을 갖고 자연스러운 상징성을 가진다. 백색이라 함은 표백된 순백색이 아니라 소색(素色)을 말하는 것²¹⁾으로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직물 색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순수하고 소박한 민족성과 깨끗하고 화사한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음양오행(陰陽五行)²²⁾이라는 철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연과 우주의 원리에 순응하려는 노력이 구체화되면서 오방정색(五方正色)인 청(靑), 백(白), 적(赤), 흑(黑), 황(黃)과 오방간색(五方間色)인 녹(綠), 벽(碧), 홍(紅), 자(紫), 유황(硫黃)을 기본색으로 오행의 원리에 따라 인식되고 사용되었다. 이것은 소색의 소박함과 대별되는 화려미를 표현한다.

3) 문양

전통복식은 자연과의 친화 관계 속에서 형성된 정신적 여유와 소박함을 반영하여 비교적 장식성이 적은 것이 특징이나 의복에 문양이 시문됨으로써 그 아름다움이 돋보이는가 하면 문양자체로 인하여 한층 승화된 복식의 아름다움이 표현되었다.

문양은 형태, 색채와 함께 시대와 민족을 대표하는 조형 요소로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다. 식물문양, 동물문양, 자연문양, 문자문양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식물문양에는 사군자, 모란, 연꽃, 석류, 불로초, 소나무, 등이 있고 동물문양으로는 용, 호랑이, 사슴, 원앙, 공작, 학, 거북, 꿩 등이 있다. 자연문양에는 구름, 해, 달, 무지개, 물결, 산수, 바위 등이 많이 활용되고 문자문양은 부귀(富貴), 수복(壽福) 등의 길상한 용어를 사용한다. 문양을 표현하는 방법은 직금(織金), 금박(金箔), 자수(刺繡) 등이다.

이처럼 우리의 전통문양은 우리민족의 생활정서와 감정이 솔직하게 표현되어 장식효과와 함께 신분예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 때로는 자신이 뜻하는 바를 이루려는 염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4) 소재

소재는 그 재질감에 의해 형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어 미적인 효과를 표현하므로 각종 직물들은 고유의 속성과 함께 그 의복만이 갖는 미적 특성을 나타낸다. 특히 우리 전통한복은 그 형태가 제한적이라 소재에서 나타나는 다양함과 아름다움이 복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종류는 크게 혼례복의 소재로 가장 많이 사용된 정교하고 고급스런 견직물과 주로 서민들이 사용한 거칠고 소박한 마직물로 나눌 수 있다. 견직물은 상류층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소재로 특유의 광택과 감촉이 있고 부드럽고 섬세한 직물로 곱고 정교한 재질의 얇은 견직물인 사(紗), 무늬가 있는 견직물인 능(綾), 나(羅)와 단(緞)등의 비단이 있다. 주로 서민들에게 많이 이용되었던 삼

21) 권오금 (1992). 「한복에 있어서 꽃을 소재로 한 조형적 표현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22) 우주나 인간의 모든 현상을 음·양 두 원리의 소장(消長)으로 설명하는 음양설과, 이 영향을 받아 만물의 생성소멸(生成消滅)을 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의 변전(變轉)으로 설명하는 오행설을 함께 묶어 이르는 말.

베는 삼국시대부터 사용된 마직물로 올이 굵고 거친 느낌은 우리민족의 소박하고 소탈한 미적 특성을 잘 나타내 준다. 다시 말해 소재에서 느껴지는 조형성이라 하면 면, 마와 같은 천연소재가 가진 질박한 소박미와 견직물의 재질감이 주는 화려함으로 대별된다.

2. 내용미의 표현요소

1) 자연친화적 미

우리민족은 전통적인 농경생활로 일찍 자연의 절대성을 인정하여 자연 질서에 적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순응하며 살아왔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민족의 정신생활에서 경천사상과 자연숭배사상을 낳았으며 자연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자연의 순리에 적응하는 자연관을 확립하게 했다.²³⁾ 이것은 복식의 형태나 색채, 소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인공적인 장식 선을 배제한 여유 있고 풍성한 형태감은 자연과의 조화와 편안함을 추구하는 자연친화 개념이 바탕이 되는 것이다. 색채의 있어서도 황색을 대표하는 치자, 청색을 대표하는 쪽, 흑색을 대표하는 숯 등 천연염료로 염색되어지며 백색의 사용도 소재 원래의 색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자연과의 친화를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자연친화적 미의 선호는 복식의 소재에서도 강하게 나타나는데 의복에 사용되는 소재는 주로 삼베, 모시, 면 등의 식물성 소재와 견, 노방 등의 동물성 소재, 금사나 금박의 광물성 소재가 있다. 천연소재²⁴⁾의 거칠고 투박한 직물에서는 편안한 자연섬유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며 곱고 정교한 소재에서는 우아하고 부드러운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복식의 장식무늬에서도 비자연주의적 모티프(motive)보다 식물·동물문양 등의 자연주의적 모티프의 사용이 절대적으로 많은 점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연친화적 미는 한국복식의 형식 곳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소박하고 편안하며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여 자연과의 조화 등을 표현하고 있다.

2) 주술(呪術)적 미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살았던 우리민족은 고대부터 체계나 조직이 있는 종교가 아닌 민간 신앙으로서 무속신앙이나 토속신앙이 발달하였다. 이는 고대인들이 농경사회에서 느꼈던 자연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어 하늘을 절대적인 신으로 여겼으므로 신을 받들어 액(厄)을 피하려는 주술적인 성격을 의미한다.

색채를 통한 주술성은 소재의 정갈함과 대조적인 원색사용이나 색동 등의 대비조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²⁵⁾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에 근거한 오방색은 역귀(疫鬼)를 쫓을 때 사용되었는데, 오방색 중에서도 청·홍색은 양색(陽色)으로 음기(陰氣)인 잡귀를 쫓는 색이라 하여 민간신앙

23) 금기숙 (1988). 「조선시대 복식에 표현된 한국인의 미의식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41.

24) 양정숙 (2003). 「한국복식의 조형성을 응용한 디자인 연구」, 계명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0.

25) 금기숙, 앞의 글, p.253.

에 자주 활용되었다.²⁶⁾ 색동저고리 또한 음양오행설에 따라 나쁜 기운을 막고 무병장수를 위하여 5방색(五方色)을 이어 붙여 신부나 어린아이들에게 입혔다고 한다.

문양은 순수한 심미성 보다는 인간의 염원이 내포되어 있는데 문양이 가장 많이 활용된 활옷의 장식문양에는 장수를 기원하는 십장생을 수놓았다. 또 연화문, 목단문, 봉황문 등에는 신부의 길복(吉福)과 부귀(富貴多男)에 대한 염원이 강하게 표출되어 있다.

이처럼 한국복식에 사용된 장식무늬는 순수한 심미성보다는 인간의 염원이나 희구(希求)가 내포된 주술적 미를 표현한다.

3) 의례중시적 미

한국복식에서 의례 중시적인 미의식에 큰 영향을 준 생활환경은 유교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는 엄격한 서열의식과 예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생활규범을 낳았으며, 이는 복식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구현되었다. 의관의 정제로 이루어지는 한국복식의 형태는 의례와 절차를 중시한 유교의 이념에 의한 것이며, 의복의 풍성한 형태감 또한 착용자의 신체가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예를 다하고 위신과 체통을 지키기 위한 복식의 외형적 특색이라 볼 수 있다.²⁷⁾

복식의 색채에도 유교적 관념은 강하게 나타나는데 유채색의 사용에 있어서 색채마다 등위의 개념을 두어 신분에 맞는 색을 착용하도록 한 것은 유교의 서열의식에 의한 예 관념을 나타내며²⁸⁾ 용문(龍紋), 봉문(鳳紋), 화문(花紋) 등의 장식무늬 역시 색채와 마찬가지로 신분을 상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IV. 선호도 조사에 따른 국내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특성

1. 조사 목적 및 방법

오트쿠튀르(haute couture)의 성향이 강한 웨딩드레스의 특성상 결혼을 앞둔 신부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설문조사가 아닌 다양한 취향을 가진 다수의 신부들과 상담, 대어를 반복하는 업체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 설문조사가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2006년 5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과 압구정동 주변에 밀집해 있는 웨딩드레스 업체 10곳을 직접 방문하여 팀장과 실장 등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정확한 통계 결과를 위한 설문조사가 아닌 작품 디자인에 반영하기 위한 포괄적인 웨딩드레스 선호도 조사임을 밝힌다.

26) 남기연, 앞의 글, p.76.

27) 금기숙, 앞의 글, p.245.

28) 김영자, 앞의 글, pp.43~46.

설문지 문항은 웨딩드레스 디자인 요소별로 10문항과 웨딩 에프터드레스(After Dress) 디자인 요소별 9문항, 여기서 에프터드레스란 호텔예식이 대중화 되면서 본식 후 드레스를 바꾸어 입고 2부 순서를 가져 친지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결혼형식에서 업계를 중심으로 생겨난 신조어로 최근 그 대여비율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디자인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답변자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 7문항 등 모두 26문항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2. 조사 분석 결과

본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웨딩드레스 실무경력 3년~20년인 20대부터 50대까지의 여성이며 하루 평균 신부들과의 상담을 적게는 2회에서 많게는 8회 이상 하는 웨딩드레스 업체의 팀장, 실장 그리고 원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위의 대상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웨딩드레스 선택 시 신부들의 대다수가 실루엣을 가장 중요한 디자인 요소로 생각하며 네크라인과 소재를 포함하여 본인에게 어울리는 느낌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웨딩드레스 길이가 지나치게 길었으나 최근 그 길이가 바닥에 끌리는 정도로 짧아져 간소화 경향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슬림한 A-라인을 선호한다. 또한 길고 웅장한 트레인을 달아 화려하게 연출하던 것에서 변화되어 최근에는 트레인이 다소 짧아지고 생략되는 등 그 형태가 변하고 있다.

〈표1〉 웨딩드레스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자인 요소										
업체 디자인 요소	A	B	C	D	E	F	G	H	I	J
디자인 요소	실루엣	어울리는 여부	실루엣	어울리는 여부	실루엣	실루엣, 넥라인	실루엣	넥라인	실루엣, 넥라인	실루엣, 소재

그리고 답변자의 80% 이상은 신부들이 소매가 없는 탑드레스를 입기 원한다고 답하여 과거와 달리 웨딩드레스 선택 시 신체의 노출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답변자들은 연예인들의 결혼식 웨딩드레스가 일반인들의 유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으며 실제로 최근 결혼한 배우 심은하, 한가인, 김남주의 웨딩드레스<그림13~15>를 보면 어깨를 많이 드러낸 과감한 노출 경향을 알 수 있다. 또, 실루엣과 스타일은 다양하지만 장식 없이 심플한 웨딩드레스라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설문조사의 결과와도 일치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소재는 주로 미카도 실크나 공단을 사용한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실루엣 위주의 드레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색상은 백색이 일반적이던 예전에 비해 밝은 아이보리색이나 베이지 같은 은은한 색상이 대부분을 이루었다.



<그림13> 심은하 웨딩드레스
Vera Wang(2005년)



<그림14> 한가인 웨딩드레스
황재복 웨딩클래식(2005년)



<그림15> 김남주 웨딩드레스
Vera Wang(2005년)

이상에서처럼 전반적으로 선호하는 웨딩드레스 스타일은 드레스업체 마다 또는 신부의 취향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여성스럽고 우아한 이미지의 심플한 웨딩드레스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하여 유명 연예인들의 웨딩드레스가 유행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2>

〈표2〉 웨딩드레스 디자인 요소별 선호도 조사 결과					
디자인요소 업체	실루엣	소재	색상	넥라인	소매
A	머메이드	망사	백 아이보리	탑	끈
B	A-라인	실크 미카도	백 아이보리	탑, 홀터넥	얇은 끈
C	A-라인 H-라인	실크, 망사 오간자	백 아이보리 크림베이지	탑	캡슬리브, 끈
D	A-라인	레이스	백 아이보리	탑	오프숄더
E	A-라인	실크공단,레이스	백 아이보리	하트넥	캡슬리브, 끈
F	A-라인	실크 미카도	백 아이보리	탑, 보트넥	오프숄더
G	A라인	실크 레이스	베이지	V-넥, 보트넥	오프숄더
H	프린세스라인	레이스, 망사	살구빛 화이트	탑	오프숄더
I	슬림한 A라인	실크	백아이보리	탑, V-넥, 홀터넥	캡슬리브
J	A라인	실크	아이보리	탑	캡슬리브

또한 호텔예식이 대중화 되면서 본식 후 드레스를 바꾸어 입고 2부 순서를 가져 친지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형식의 결혼식 유형이 생겨나고 일반예식장에서도 이것을 모방하면서 에프터드레스 (After Dress)가 웨딩드레스의 한 종류로 자리 잡으며 대중화 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교회나 성당 예식을 제외하고는 업체마다 작게는 20% 많게는 90% 이상의 신부들이 웨딩드레스와 함께 에



<그림16>심은하 에프터드레스
디자이너 지춘희(2006)



<그림17>에프터드레스
정경애웨딩모드(2005)



<그림18> 에프터드레스
클라라웨딩(웨딩21,2005년1월호)

프터드레스를 대여해서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프터드레스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자인 요소는 <표3> 과 같이 웨딩드레스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색상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는 웨딩드레스와는 달리 색상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색상 선택에 취향을 반영하는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실루엣은 웨딩드레스보다 슬림한 A라인과 H라인을 선호하며 길이도 걷는데 불편하지 않게 바닥에 살짝 끌리는 정도가 일반적이다. 웨딩드레스와 마찬가지로 탑드레스의 선호도가 높았으나 친지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인사를 드리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림17>과 같이 어깨에 얇은 끈을 달거나 술이나 볼레로를 걸쳐 노출을 자제하는 경향을 보였다. 소재는 웨딩드레스보다 가볍고 슬림하며 자연스러운 느낌의 실크나 폴리 쉬폰과 레이스가 주로 사용되고, 색상의 경우 핑크색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성스럽고 부드러우며 귀여운 스타일을 연출하기 원하는 신부들의 요구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색상은 신부들의 취향에 따라 스카이블루, 연두, 와인, 보라 등의 다양한 색상을 원하기도 하지만 이는 전체의 10%정도의 작은 수치에 해당되는 결과이다.

<표3> 에프터드레스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자인 요소

업체 디자인요소	A	B	C	D	E	F	G	H	I	J
디자인 요소	실루엣	색상	부모님취 향에 따라	색상, 넥라인	실루엣, 색상	실루엣, 색상	실루엣, 색상	색상	색상	색상

〈표4〉 에프터드레스 디자인 요소별 선호도 조사 결과

디자인 요소 업체	실루엣	소재	색상	넥라인	소매
A	H라인	실크 쉬폰	파스텔핑크, 그린	탑	끈(90%이상탑)
B	슬림한 A라인	실크 레이스	오렌지, 보라	다양한 넥라인	끈, 캡슬리브
C	슬림한 A라인	쉬폰, 공단	연핑크, 살구	얇전한 넥라인	캡슬리브
D	H라인	실크 쉬폰	핑크, 파스텔 그린	보트넥	캡슬리브
E	슬림한 H라인	실크 쉬폰	핑크, 보라, 와인, 하늘색	탑(솔,블레로), 오프숄더	오프숄더
F	슬림한 A라인	실크 공단	핑크, 블루, 그린	탑	끈, 프렌치소매
G	슬림한 H라인	실크 공단	연핑크	탑	끈
H	슬림한 H라인	쉬폰, 레이스	파스텔 핑크	보트넥	캡슬리브, 끈
I	슬림한 A라인	레이스	핑크, 살구	탑, 오프숄더	캡슬리브
J	슬림한 A라인	실크 쉬폰	핑크	탑(블레로), 끈	적당한 오프숄더

V. 디자인 개발 및 작품 제작

1. 디자인 의도 및 방법

현재의 우리나라 웨딩드레스는 무분별한 서구 중심적 패션을 지향하거나 유명연예인의 결혼식 웨딩드레스를 무조건 선호하여 한국적인 주체의식이나 독창성 없이 대중들에게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현대의 결혼식 문화와 맞지 않는 한국 전통혼례복을 무조건 강요하는 것은 그 설득력을 갖지 못하기에 색채, 형태, 문양, 소재 등의 한국 전통복식의 조형미를 충분히 반영하되 현대의 결혼식 문화와도 어울리며 신부들의 선호도에도 부합되는 웨딩드레스 디자인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전체적인 실루엣은 한복 치마에서 느껴지는 풍성함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소재는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레이스와 공단은 우리 고유의 독창적인 디자인에 한계를 준다고 판단하여 수입 공단과 레이스 대신 전통 한복 원단을 제조, 판매하는 전문점을 중심으로 구입한 다양한 종류의 실크를 사용하였다. 색상은 트렌드를 충분히 반영한 아이보리색 계열을 중심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우리 전통한복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소색(消色)과도 그 느낌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에프터드레스의 경우는 90%이상의 신부들이 여성스럽고 어려보이는 느낌의 파스텔 핑크색을

선호하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화사한 핑크색을 메인 컬러로 사용하여 보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강조하였다.

더하여, 왕관 대신 아이보리색 공단으로 족두리를 제작하고 여기에 호박, 산호, 옥구슬 등의 전통적인 장식을 가미하였으며 크리스탈을 부분적으로 붙여 소재와 실루엣 위주의 심플한 웨딩드레스에 장식미를 더하였다.

이렇게 한국 전통복식의 조형성을 웨딩드레스 디자인에 활용함에 있어 전통성을 충분히 반영하되 웨딩드레스 트렌드에 부합되는 현대적인 웨딩드레스 디자인을 제시해 보았다.

2. 작품 설명

1) 작품1

① 스타일(style): 여성스럽고 세련된(feminine, sophisticated)

② 실루엣(silhouette): H-라인(H-Line)

③ 색상(color): 백 아이보리(pale ivory), 실버(silver)

PANTONE 11-0601 TC Bright White

PANTONE 12-0404 TC Light Gray

④ 소재(fabric): 실크(옥사, 양단)

⑤ 디자인의도(design motive): 조선 후기 부녀자들이 걸치마를 부풀리기 위해 받쳐 입던 속치마로 서양의 페티코트(petticoat)와 유사한 역할의 무지기치마(無足裳)<그림10>에서 모티브를 얻어 디자인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한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최근 경향을 반영하여 슬림한 라인의 탑드레스로 제작하였고 색상은 우리 조상들이 즐겨 입던 소색, 즉 자연스런 아이보리색 실크 옥사와

⑥ 도식화(Flat Sketch)



⑦ 작품사진



은색 양단 자카드(jacquard)를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우아하고 차분한 소색에 세련된 느낌을 가지며 고 은은한 컬러의 스팅글을 달아 장식성을 높였다.

2) 작품2

- ① 스타일(style): 우아하고 고전적인(elegant, classic)
- ② 실루엣(silhouette): 풍성한 A-라인(A-Line)
- ③ 색상(color): 아이보리(ivory), 백아이보리(pale ivory)
PANTONE 11-0809 TC Bright
PANTONE 11-0606 TC Pristine

④ 소재(fabric): 실크(모본단, 공단)

⑤ 디자인의도(design motive): 조선시대 여성 예복인 당의의 곡선과 한복 치마의 실루엣을 모티브로 하여 원피스(one-piece)드레스 형태로 제작하였다. 당의의 형태에서 소매 부분을 생략하여 어깨를 과감히 드러냄으로써 웨딩드레스 선호 경향을 반영하여 보다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또 한복치마에서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주름의 풍성한 A-라인으로 가슴부분은 조여주고 아래는 풀어주는 전통한복에서 볼 수 있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실루엣을 보여준다. 은박을 이용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주었고 왕관 대신 아이보리색 공단에 호박, 산호, 진주 등을 장식한 족두리를 제작하고 스와로브스키(Swarovski) 크리스탈을 붙여 전통적인 족두리에 현대적 아름다움을 가지며 화려함을 더하였다.

⑥ 도식화(Flat Sketch)



⑦ 작품사진



3) 작품3

- ① 스타일(style): 독특하고 화려한(unique, colorful)
- ② 실루엣(silhouette): bell-shaped(bell-shaped-Line)

③ 색 상(color): 파스텔자주색(Pastel reddish purple), 연두색(yellowish gre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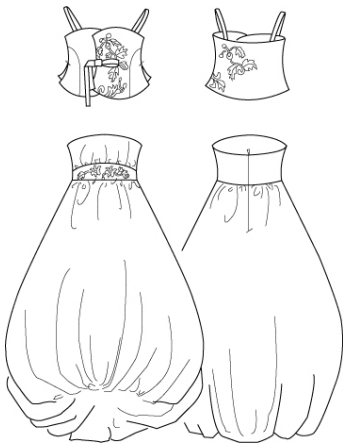
PANTONE 16-3116 TC Opera Mauve

PANTONE 14-1110 TC Boulder

④ 소 재(fabric): 실크 타프타(Silk Taffeta), 양단

⑤ 디자인의도(design motive): 원피스 형태의 스커트에 당의를 모티브로 한 조끼를 덧입는 투피스(two-piece)로 구성되어 있다. 스커트의 앞자락을 살짝 올려 신부의 활동성을 고려하면서 독특한 실루엣을 연출하였고 조끼 형태의 상의를 덧입음으로써 여성스러우면서 단정하고 독특한 이미지를 동시에 표현하였다. 실크 타프타(taffeta)와 양단을 사용하여 전통소재가 적절히 활용 될 수 있게 하였다.

⑥ 도식화(Flat Sketch)



⑦ 작품사진



VI. 결론

서양 중심의 의복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몇몇 국내 디자이너들을 통해 전통복식미가 현대패션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무대로의 진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른 어떤 복식보다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진 결혼예복에 한국전통의 조형미를 접목시켜 전통한복의 조형적 특성을 웨딩드레스 디자인에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전통한복을 현대적으로 활용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을 조형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식미로 표현되는 전통여성 복식의 대표적인 형태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으로 그 착장미, 비례미 등은 독창적일 뿐 아니라 우리 체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면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이것은 서양의 웨딩드레스의 형태와도 그 유사함을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유교적 관념으로 신

체를 드러내는 것을 피하였던 우리와 달리 서양의 드레스는 신체의 곡선을 강조하기 위해 허리를 조이고 스커트를 부풀리는 하후상박의 형태를 만든 것으로 그 내용미에서는 상반됨을 보인다.

둘째, 염색을 하지 않은 명주나 삼베의 고유색에서 우러나오는 소색은 자연스러운 우아함을 느낄 수 있으며 이것은 웨딩드레스에 여성스럽고 우아한 밝은 아이보리색이 선호되는 최근 경향에서 그 시각적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또 음양오행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전통색인 오정색과 오간색은 현대에 와서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다양한 파스텔컬러가 그 역할을 대신하여 은은한 화려미를 더하여 준다.

셋째, 평면적이고 소박한 전통복식에 화려함과 장식성을 가미하기 위하여 식물, 동물, 자연문양 등의 다양한 종류의 문양이 사용되었고 각각의 문양은 그 내용을 담고 있다.

넷째, 전통복식의 소재에 있어 정교하고 고급스러운 견직물과 거칠고 소박한 재질감의 면, 마 등으로 나누어지며 이것은 천연소재가 가진 질박한 소박미와 견직물의 재질감이 주는 화려함으로 대별된다. 또 웨딩드레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단과 레이스는 우아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다양한 전통실크와 유사한 재질감을 가진다.

이와 같은 조형적 특성을 웨딩드레스 디자인에 반영하여 디자인을 제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작품1>은 슬립한 H-라인의 여성스럽고 세련된 실루엣으로 서양의 페티코트(petticoat)와 유사한 역할의 무지기치마를 모티브로하였으며 아이보리색 실크 옥사와 은색 양단을 사용하여 우아하고 차분한 느낌을 주었고 스팅글을 달아 장식성을 높였다. <작품2>는 풍성한 A-라인으로 전통한복의 비례미와 착장미를 통해 우아하고 고전적인 느낌을 강조하였다. 당의 곡선을 활용하여 웨딩드레스 유행경향을 가미한 탑드레스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소재는 실크모본단과 공단으로 고급스러움을 살렸다. <작품3>은 독특한 실루엣과 색상으로 여성스럽고 화려한 느낌을 부각시켰고 소재는 실크타프타와 양단을 매치하여 전통소재가 적절히 활용될 수 있게 하였다.

결론적으로 현대복식의 한 분야인 웨딩드레스 디자인에 있어 한국적 독창성을 살리는 동시에 현대 웨딩드레스 트렌드를 반영하여 시대적으로 활용 가능한 디자인을 개발함으로써 그 활용화 방안을 제시해보았다.

본 연구의 제언으로는 한국복식의 조형미를 반영하는 동시에 신부들의 선호도에도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웨딩드레스를 제시함으로써 전통복식의 아름다움을 재인식하고 현대 생활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같은 연구가 웨딩드레스를 포함한 더욱 넓은 범위에서 다양하게 연구되기를 기대한다.

(접수: 2006년 10월 30일)

【참 고 문 헌】

- 조효순 (1989). 『한국복식풍속사 현구』, 서울: 일지사.
- 문화관광부 (2000). 『우리옷 이천년』, 미술문화.
- 안명숙 · 김용서 (1996). 『한국복식사』, 서울: 교문사.
- 백영자 (1999). 『한국의 복식』, 서울: 경춘사.
- 박성실 · 조효숙 · 이은주 (2005).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 단국대학교 출판부.
- 유효순 · 최해율 (2000). 『복식문화사』, 서울: 신광출판사.
- 최세완 (1992). 『현대패션에 표현된 한국복식의 전통미』,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혜영 (1993). 『전통혼례복을 활용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기연 (2000). 『한복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현대의상 개발 연구』, 한성대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오금 (1992). 『한복에 있어서 꽃을 소재로 한 조형적 표현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자 (1990). 『한국복식미의 연구-예의관과 표현미를 중심으로』, 세종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금기숙 (1988). 『조선시대 복식에 표현된 한국인의 미의식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정숙 (2003). 『한국복식의 조형성을 응용한 디자인 연구』, 계명대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금기숙 (2004). “전통복식 문화의 현대적 활용 방법모색” [한국복식 제22호]
- 금기숙 (1990). “조선복식미의 탐구” [복식학회지 14호]
-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 <http://100.naver.com/100.nhn?docid=43729>
-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 <http://100.naver.com/100.nhn?docid=612>
-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 <http://100.naver.com/100.nhn?docid=149237>
-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 <http://100.naver.com/100.nhn?docid=133796>

A Study on Wedding Dress Design for Modern Application of Traditional Costumes

Fashion Design, Graduate School of Design, Kookmin Univ. **Kwon, SoonKyo**

Professor, Fashion Design, Kookmin Univ. **Park, SunKyung**

As mass media and internet develop and fashion trend becomes a tendency, today's costumes change. With the introduction of western clothes at the end of Joseon Dynasty, our costume has undergone many changes and traditional and modern costumes have coexisted. In addition, wedding ceremony and formal dress introduced along with the Western civilizations have lost their Korean uniqueness and have conventionalized in a western manner.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tilize traditional Hanbok (Korean clothes) in a modern style by applying it into the design of wedding dress in connection with the formative beauty of Korean tradition in an effort to improve western-oriented costume culture.

This study examined a theoretical research based on previous research theses, books and various photo materials and an empirical research through an in-depth interviewing survey in the concrete utilization process.

Its concrete content included the following: first, the study looked theoretically in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female costumes and examined formal beauty in terms of their beauty of form and content. Second, the study figured out the design trend of domestic wedding dress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 preference survey and produced two pieces of wedding dresses by developing design corresponding to modern application.

This study suggested a method of utilizing Korean traditional costumes by developing the design that could be used periodically in terms of reflecting wedding dress as well as of enhancing Korean uniqueness in wedding design, one of the fields in modern costume.

Key words: Traditional Costumes, Beauty of Tradition, formative characteristic, Modern Application, Trend of Wedding Dress Design